

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지역 주민 함께 해요”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내 역량강화파견사업 실시
각화종합사회복지관·광산구장애인복지관서 공예교실·정리수납자격증반 운영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에서 역량강화 파견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역량강화 파견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 의존도가 높은 이용자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 안에서 살아가고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당사자와 지역주

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파견을 202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각화종합사회복지관과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서 각각 공예교실, 정리수납자격증반을 운영한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들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좋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김미란 광주시장애인복지관장은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비장애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광양시, 배설 케어 로봇 운용 활성화 돌파구 마련

로봇 활용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활성화

광양시는 (재)전남테크노파크, 광양지역자활센터, 휴먼협동조합, ㈜큐라코와 ‘배설 케어 로봇의 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8일 전남테크노파크 본원에서 체결했다.
‘배설 케어 로봇사업’은 2018년에 선정된 정부 공모사업으로, 혼자서 대소변 처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의 위생관리 향상과 돌봄 인력의 일손 경감을 위해 지역 내 요양 시설 및 재가에 로봇을 보급해 운영 중이다.
시는 사용상 불편 해소, 로봇 조작 및 사용방법이 복잡하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사용자 의견 청취, 주관기관 및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했다.
그 결과, 광양지역자활센터 복지간병사업단을 활용해 전담 인력(서비스 제공자)을 파견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어르신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광양시’는 신규 수요처 발굴 및 모집 ▲‘(재)전남테크노파크’는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자 월별 업무수행 보고 관리, 로봇 보관장소 제공 ▲‘광양지역자활센터’는 서비스 제공자 파



견을 통한 로봇 활용 활성화 및 월별 업무수행 보고 ▲‘휴먼협동조합’은 요양병원 현장 지원 및 서비스 제공자 관리 ▲‘㈜큐라코’는 로봇 설치 및 이설, 장애 처리, 서비스 제공자 인건비 일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광양·심종섭기자



함평군 학교면, 주거취약계층 위한 ‘클린-UP 복지-UP’ 사업 실시

거동불편 장애 독거노인가구에 청소·방역 서비스 제공

함평군 학교면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클린-UP 복지-UP’을 실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클린-UP 복지-UP’ 사업은 주거환경 또는 위생이 열악한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선, 청소 및 방역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상가구는 뇌병변장애가 심한 독거노인가구로 거동이 불편해 청소·방역

등 위생관리에 도움이 필요했다.
이날 사업에 참여한 관내 업체 영수환경은 재능기부를 통해 2톤 가량의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안방과 화장실 등 실내 청소와 분무 소독을 실시했다.
영수환경 유성현 대표는 “지속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함평=김광훈기자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위한 심터 프로그램 운영

워크북 뇌총총 학습하기·원예활동·신체활동 등

영광군은 지난 4일부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심터 ‘소중한 나의 기억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중한 나의 기억 찾기 프로그램은 외부활동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치매약화 방지를 위해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내용은 ▲워크북 뇌총총 학습하기 ▲원예활동 ▲신체활동 ▲고추장 만들기 ▲공예활동 등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발열측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씻기 및 손소독,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하고 있다. 영광읍에 거주하는 한 참여자는 “코로나19로 집에서 누구

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매우 우울 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니 마음이 편하고, 매우 행복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치매심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치매를 조기에 관리하고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면서,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